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농·수산업 예산 30% 늘려 농어업인 소득 기반 확충”

김희수 진도군수

“군민이 주인인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겠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기 위해 조그만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진도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퇴직할 때까지 36년간 진도군에서 근무했다. 조도면장과 진도읍장, 농산유통과장 등을 지낸 행정전문가다. 2010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무소속으로 나선 끝에 당선됐다.

그는 “진도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희망찬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편 가르기야 낡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소통과 혁신의 새로운 진도를 바라는 군민의 간절한 열망이 더되지 않도록 진도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가공·판매·체계의 융복합 농수산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군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공직자상 정립,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 좋은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역점을 두어 추진할 시책은 무엇인가.
▲ 다 함께 잘사는 산업, 모두가 행복한 복지,

행복한 복지·섬기는 행정 등 ‘5대 혁신과제’ 기반 군정 이끌 것 방과 후 온라인 강의 지원하고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도입 추진

인재를 키우는 교육, 찾아서 머무는 관광, 군민을 섬기는 행정 ‘5대 혁신과제’를 기반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다 함께 잘사는 산업 혁신을 위해 농·수산업 분야 예산 30% 이상 확대 편성, 농수산분야 조직 확대 및 농수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

어르신 노후시설 개선,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다문화가정 문화교류 공간 확보 및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군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며 교육 환경 조성, 방과 후 유명강사진 온라인 강의 교육 지원, 꿈 키움센터 건립 및 거점형 공영 돌봄센터를 운영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기 지역으로 만들겠다.

또 예술문화재단 설립, 진도개 보호 육성,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및 힐링·치유의 숲을 조성해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조성하겠다.

- 인구 3만명 선이 붐볐는데 대책은 있다.

▲ 계층·분야별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해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사회 전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각지대가 없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진도를 만들고 진도군의 관문인 녹진 관광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호텔&리조트 사업 등 체류형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인구를 늘릴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농산물 재배 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진도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농수산업 투자를 늘리려는 이유는.

▲ 농어업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산업혁신을 군정 최우선 정책 추진을 위해 농·수산업 분야 예산을 30% 이상 확대 편성해 진도군의 농·수산업 주력 산업인 생산·가공·판매·홍보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확대 운영하겠다. 또 농어가 소득 증대 기반 구축을 위해 해조류 종자 개발과 소득작목 집중 육성, 서양향 어항기능을 확충하고 돛·돛 등 농수산물 가공시설을 확대 산업·농공단지들 활성화와 농지 이용률 제고에도 힘쓰겠다.



기본 소득 수당과 바·보리, 구기자, 표고버섯 등의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계절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등 농수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교육과 복지정책이 눈에 띈다. 어떤 구상인가.
▲ 명문고교, 예절학교 등 명문학교 육성을 지원하고 농수산업 후계인력 양성, 진도국악 서화

반 신설과 장학금을 확대하겠다. 또 방과 후 유명강사 온라인 강의 지원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겠으며 출산과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출산장려금과 지급 방법을 개선하고 지역별 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민 편의 제공이 군정의 최우선 과제이므로 원스톱 민원 기능 처리반을 운영하고 복지직 종사자에 특별수당을 지원하겠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요양시설·경로당·복합장 등의 노후시설을 환경개선하고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겠다.

이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아간·주말 아이돌봄 서비스와 여성플라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 공직사회 변화를 강조했다.

▲ 군청 조직은 일하는 조직, 군민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행정의 혁신이 필요할 때다.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첫 번째로 경력과 능력 위주의 승진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 친절공무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불친절과 소극행정, 조직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무원은 신상필벌 해 군민에게 봉사하고 위민행정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겠다. 인일한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직사회 변화를 강조했다.

▲ 군청 조직은 일하는 조직, 군민을 최우선시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행정의 혁신이 필요할 때다.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첫 번째로 경력과 능력 위주의 승진 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로 친절공무원을 비롯한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불친절과 소극행정, 조직의 활력을 저해하는 공무원은 신상필벌 해 군민에게 봉사하고 위민행정을 위한 인사운영을 하겠다. 인일한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실천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농어촌 학생 교통비 절감

3개 버스업체와 업무협약

거리 상관없이 100원 요금

진도군이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가계 부담과 학생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진도군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등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거리에 상관없이 모두 100원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진도군과 관내 3개 버스업체는 지난 7월말 업무협약을 갖고 학생요금을 100원으로 낮추는 대신 요금 인하에 따른 손실 보상을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을 통해 지급기로 했다.

청소년 100원 버스는 민선8기 김희수 진도군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 학생 교통비 부담 절감 등 교



통 복지 향상이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100원 버스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버스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

“최고 진도개를 찾아라.”

진도군이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를 소재로 한 ‘제1회 미스&미스터 진도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진도군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진도개의 다양한 모습과 특성을 반영하고 진도개의 이미지와 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수상작은 9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금상 100만원(1명), 은상 각 50만원(2명), 동상 각 30만원(3명), 장려 각 20만원(4명), 입선 각 10만원(40명) 등 총상

금 770만원을 진도군수 상장과 함께 전달한다. 공모전 참가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1인당 4점으로 제한한다.

수상작은 진도개 행사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접수는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진도군-읍 성죽골길 30)에 11×14인치 인화 사진 또는 USB 등으로 저장 후 참가 신청서 등과 함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팀(061-540-6308)으로 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진도군, 코로나 원스톱 의료기관 3개소 운영

진도군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맞아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진도군은 최근 검사·진료·먹는 치료제 처방 등 원스톱 대응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진도한국병원과 코로나19 응급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진도한국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속·적절한 진료를 제공한다.

또 확진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의료기관을 진도한국병원, 진도전남병원, 속편한 과내과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기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8월호

2022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정원에서 힐링하다

- 나의 정원이 모두의 정원으로
- “그 섬에 특별한 정원이 있다”
전남 민간정원 1호 ‘힐링파크 쑥섬쑥섬’
- 전라남도 정원 문화와 산업 가관다

美路 味路

초록 물결 일렁이는 보성
녹차수도로 여름 여행

- 득량역 ‘추억의 거리’와 갈골마을
- 율포 솔밭해수욕장/제암산 자연휴양림 / 내한터널 녹차밭
- 백록담원 ‘보성녹차’ / 상선농민 딸기 브랜드 ‘그로우클로무’
- 복합관광시설 카페 ‘복재’

연중 기획·광주 한바퀴

GWANGJU TOUR

#8월 광주여행
#동명동 일대 풀리 #광주음성과 풀리 #충장로 풀리
#뚝뚝의 공간 속 풀리

에앙 초대석

제주에 정착, 창작의 발 일구는 시인
문태준
“문장을 얻는다는 것은 새 마음을 얻는다는 뜻”

여름기획
음악, 문학, 미술의 아름다운 바다
‘예술여행’ 원한다면 통영으로 떠나요

기회-유럽은 지금 미술축제 중
- 장현우 관장의 유럽 미술 빅이벤트 관람기
- 예술 축제의 도시들에게 배운다

황영성 화백의 아메리카 그림 여행①
오래된 화실에서 매력적 미국 풍경이 살아난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②
철의·학문 드높은 하시 김인후 배향 장성 필암서원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
뒀든 느린 미술평론가 유준상 점심 요리 저녁 때야 완성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
영화 ‘브릿지 존스의 일기’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